

오바마 행정부 2015년 예산에 GCF 5억 달러 약속

미 대통령 16년 예산, 수십억 달러 기후 조치에 할당 계획

2015.2.3, Sophie Yeo/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6년 예산안에서 UN의 녹색기후기금(GCF)에 5억 달러를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준비 및 배출량 감축을 돕게 될 것이다.

이 5억 달러는 작년 오바마 대통령이 기금에 약속한 30억 달러 중 첫 번째 분할액이 될 것이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미국 지부 선임 국제 정책 분석가 카렌 오렌스테인(Karen Orenstein)은 “우리가 의회에 촉구하는 바는 GCF 자금을 책정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 자본(political capital)을 활용하라는 것”, ... “2017년 회계연도에는 GCF 할당 예산액이 늘어 미국이 GCF에 약속했던 30억 달러를 4년동안 모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에는 배출량 감축의 폭과 속도를 늘리는 인센티브도 포함되었다.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에 74억 달러, 석탄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40억 달러를 편성한 것이다.

이 중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량 감축에 할당된 40억 달러는 각 주가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량 감축 관련 조기 목표를 설정하거나 의무량보다 더 많은 감축량을 설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각 주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청정 에너지 기술 재정 지원, 과다 오염에 직면한 저임금 지역사회 지원,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쓸 수 있다.

2015년 예산안에서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69억 달러를 제시한 바 있으며, 16년도 예산에서는 이보다 증가한 74억 달러를 책정한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분야에서, 지역사회의 홍수 리스크 평가를 위한 금액이 4억 달러, 가뭄 퇴치가 8천 9백만 달러 제시되었다.

예산안 보고서는 “기후 해법 및 기후 준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압도적인 과학적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하다”고 썼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마지막 임기 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편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는 미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규 법안 통과를 힘들게 해왔었으며, 2016년 예산안 일부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상원 에너지 공공사업 위원회(Senate Energy and Public Works Committee) 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 제임스 인호퍼(James Inhofe)는 성명을 통해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신규 자금이 들

[0203_번역]

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모든 힘을 동원하여 국민 혈세 30억 달러가 GCF로 가는 것을 막겠다. GCF로 흘러 들어간 자금은 비선출적인 UN 관료들이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개도국이 빈곤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역량을 저해한다” 고 썼다.

전체 2016년 예산은 4조 달러에 달한다.

출처 = <http://www.rtcc.org/2015/02/02/obama-pledges-500m-for-green-climate-fund-in-2016-budget/>